

## 왜 총리가 자주 바뀌나요?

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이유는 총리선출 방식을 문제 삼는 정치적 후진성과 더불어 인물검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, 세습 정치인이 많다는 점을 들 수 있음

### 1. 일본 총리,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?

- 1990년 이후 지금(2011년 9월말)까지 총14명의 총리가 바뀌었으며, 재임기간은 평균 1년 6개월이 채 안됨
- 같은 기간 중 미국은 4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, 일본과 같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에서조차 총리는 4명뿐이었음
- 특히 일본은 최근 5년간은 무려 5명이 새롭게 총리의 자리에 올라 모두 거의 1년씩 재임했음
- 상황이 이렇다보니, 일본에서조차 총리의 이름을 기억할만하면 바뀐다는 비웃음에 가까운 냉소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국민이 늘고 있음

### 2. 총리는 왜 자주 바뀌는가?

- 총리의 잦은 교체이유로 총리의 선출 방식을 문제 삼는 사람이 가장 많음
- 일본은 그동안 줄곧 눈부신 경제성장과는 달리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
- 일본은 내각이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존립

의 조건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(중의원) 다수당의 총재가 그대로 총리자리에 오르게 됨

-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다수당의 총재가 오랜 기간 동안 굳어져 버린 정치적 파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임
- 결국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국민이 아닌 일개 정당의 파벌경쟁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, 지속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
- 총리에 오르는 인물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총리기간 단축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이유로 지적됨
- 총리가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사임을 하는 경우는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기도 함
- 또한 의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총리 투표권도 문제일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총리부임은 당연히 정권을 인수하기 위한 사전 준비시간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임
- 당내 경선은 물론 치밀한 검증 절차를 통과한 뒤 선출되고, 국정 운영을 위한 인수준비 기간을 거쳐 취임하는 대통령제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임
-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은 정치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돌연 나타나는 스타 정치인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
-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총리에 오른 여러 명의 총리는 부친 혹은 조부가 과거에 총리를 역임한 세습총리이며, 역대 총리들 중에는 대부분이 가문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의원 출신임
- 한편 최근 일본에서 총리를 직접 국민들이 뽑아야 한다는 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,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총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